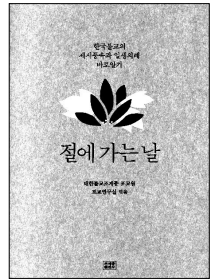


한민족 삶 속에 전승된 불교생활문화



절에 가는 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엮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8천원

책은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가 담긴 불교 세시풍속과 일생의례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 연구실에서 엮었다.



초파일의 불교풍속 연등회. 세계적 축제가 된 연등축제 모습.

불교 세시풍속과 일생의례에 대한 발굴과 전승은 불교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은 한민족의 역동적인 삶 속에서 전승되어 온 이러한 불교생활문화를 체계적으로 다루어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불자들이 '자연의 순환'과 삶의 순환 속에서 보다 불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간되었다.

불교문화의 의미와 전승주체들의 수용 양상을 분석해 온 불교민속학자 구미래, '불교'라는 주제를 교리, 역사, 인물, 문화, 미술, 상징 등의 관점으로 조망해 온 자연스님, BBS '경전의 숲을 거닐다', 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을 진행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의 이야기와 쉬운 문장들로 전하는 이미령, 세 필자들이 집필을 맡았다. '한국불교의 세시풍속과 일생의례'에 대한 정수만을 뽑아 엮었다. 불교 세시풍속과 일생의례에 담긴 의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민족의 불교생활문화 조명

불교세시풍속·일생의례 정수

자연스님·구미래·이미령 집필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불교세시풍속'에서는 설에서 윤달의 가사불사에 이르기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절기마다 담긴 불교세시풍속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단순히 불교와 절기의 상관관계만을 엮은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날 부처님 전례에서 가족과 이웃, 중생을 위한 발원, 적선공덕, 지혜와 자비의 구족에 대한 가르침을 은은하게 전달하고 있다.

정초에 행해지는 성도놀이의 경우 불교

에 처음 입문한 불자들이 놀이를 통해 불교의 교리와 세계관을 흥미롭게 익힐 수 있으며, 수행자들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되새기면서 신심을 고양시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사월초파일에 행해지는 호기놀이와 물장구놀이는 어린이의 명절이라 할 만큼 아이들이 주체가 된 독특한 놀이이기도 했다.

사월초파일, 칠월백중, 정월대보름과 팔월 한가위의 강강수월래가 탑돌이에서, 다리밟기는 월천(越川)공덕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세시풍속에는 불교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2부 '불교의례'에서는 부처님오신날, 출가재일, 성도재일, 열반재일, 우란분절 등 불교의 5대 기념일과 불교의 제일을 다루었다. 부처님 탄생과 열반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통해 종교적으로 정리되고 체계화된 측면에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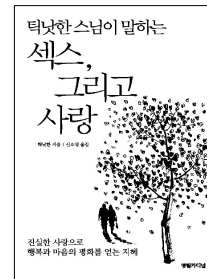
3부 '일생의례'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경전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을 통해 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산모, 성년, 부부가 뉘를 서약하거나, 나이 들을 축복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발원문이 담겨 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를 함께 해 온 지 어언 1700년이 흘렀다. 이러한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교양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고, 때로는 기존의 민간신앙과 서로 대립, 교류하는 가운데 중생의 삶과 뗄 수 없는 하나의 문화로 융화되었다. 한국의 사계(四季)에 담긴 불교 세시풍속은 자연의 순환리듬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깃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발원들이 모여 형성되었다. 불교력(佛敎曆) 또는 동북아의 불교적 배경에 따라 정립된 5대 기념일과 주요 제일 및 자연세시인 명절과 절기에 행하는 불교적 풍습은 한국의 소중한 전통문화로 뿌리내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중요한 단계마다 치르는 일생의례는 우리 민족의 불교적 일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특히 불교의 일생의례에 대한 관심은 주로 사후에 집중되어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자식을 낳아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에 이르기까지 일생의 전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감로의 지혜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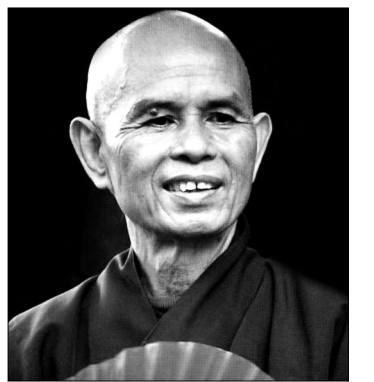
사랑과 욕망은 서로 다르다

틱낫한 스님이 말하는 섹스, 그리고 사랑

틱낫한 지음 | 신소영 옮김 | 영림카디널 펴냄
1만2천원



"우리 모두는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지만, 종종 사랑과 욕망을 혼동하기도 한다. 사랑과 욕망은 서로 다르다."



연스러운 욕구이다. 하지만 종종 사랑과 욕망, 필요와 두려움이 뒤섞여 구분하기 어렵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필요해요." 등의 가사가 담긴 사랑노래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이런 가사들은 사랑과 욕망이 같은 것이며, 사랑의 대상이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한다.

나무를 옮겨 다니는 원숭이처럼 우리는 애욕의 감옥을 옮겨 다니고 있는지 모른다. 잘 지내던 배우자나 연인이 어느 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린다. 그리고 이내 짝을 바꿔버린다. 애욕을 좇아 헛바퀴 돌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통한 행복이란 범접하기 어려운 이상향처럼 멀어 보인다.

"진실한 사랑에 반드시 섹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틱낫한 스님은 사랑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진실한 사랑은 자애, 연민, 기쁨, 평온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우선 자신에 대한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파트너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누구나 사랑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애욕의 갈망에서 벗어나 고통과 외로움을 치유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실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은 책에서 마음챙김과 집중, 지혜 얻기를 통해 애욕의 갈망을 이겨내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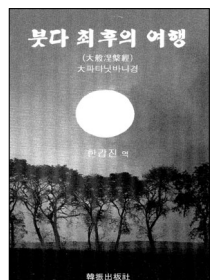
"집착에 눈이 멀면 곧 애욕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더해져 연못을 가득 채우듯이 불안감은 하루하루 더해갈 것이다." -애욕망경, 3절

책은 '진실한 사랑'에 필요한 것들을 9개의 장에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각 장의 시작마다 '애욕망경'의 구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경구들만 읽어도 진실한 사랑에 대해 깊이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완 기자**

부처님의 마지막 육성

붓다 최후의 여행-대반열반경

한갑진 옮김 | 한진출판사 | 1만원



책은 '난중일기' 등 290여 편의 영화를 제작한 바 있는 한진영상 회장이며 한진출판사 대표인 한갑진 선생이 옮긴 <대반열반경>과 부처님의 일대기를 함께 묶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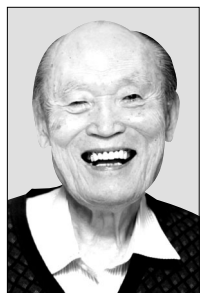
"아난다여, 내가 가고난 후에는 내가 그 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로의 스승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입멸하시고 남은 제자들은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생각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유훈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곧바로 부처님 말씀을 곁집하는 대합송 작업에 들어갔다. 그 작업은 라자가하의 칠엽굴에서 장장 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행적도 소상히 합송하며 부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전승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다가니까야> 제2권의 <대반열반경>이다.

<열반경>은 부처님 입멸 후 초기에 성립된 <소승열반경>과 대승불교가 일어난 후 성립된 <대승열반경>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그 이름을 <대반열반경>으로 하고 있어 제목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책은 <소승열반경>뿐아리 본을 옮긴 것이다.

<소승열반경>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석

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년에 마가다의 수도 왕사성에서 쿠시나가라 지역의 사라쌍수에 이르기까지 여행하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과 법문들, 공양을 받고 병을 얻으신 일, 최후의 설법, 열반에 드시는 모습, 대비의 절차, 대비 후 얻어진 사리의 분배 등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소승열반경>은 부처님의 입멸을 통해 인생의 무상과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무상과 죽음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것을 투철하게 관찰하는 것에 의해 인생에 대한 집착을 끊고 유전하는 인생에 동요함이 없이 자기



9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반열반경>을 펴낸 저자 한갑진.

를 확립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육신의 허망성과 한계를 보여 줌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의 문에서 도피하지 말고 그 문제와 마주앉아 투철하게 대결할 것을 몸소 보여준다.

<소승열반경>이 부처님의 입멸 과정을 역사적인 사실로 서술하고 있는 데 반해, <대승열반경>은 역사적인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종교적 의미를 밝히려 하고 있다. 부처님이 여행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열반에 드신 후 화장하는 모습이 묘사되지 않고 있다. <대승열반경>의 관심사는 하늘과 땅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왜 돌아가시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주류를 이룬다.

책의 후반부는 올해 90세인 역자가 평소 정리해놓은 '부처님의 일대기'이다.

역자는 "나이 90세이 책을 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감하는가에 대하여 이 책은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번

도덕경과 선

삶이 행복해지는 공부, 노자와 선이 만나!

도덕경과 선사들의 일화, 동양 고전을 넘나들며 펼쳐내는 비움의 철학!

도가와 불가, 유가를 아우르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통합적 안목! 마음의 근본 원리와 작동에 대한 동양적 사유의 성찰!

김가원 저/신국판/464쪽/18,000원

경전 속 식물들이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부처님의 탄생부터 출가, 수행, 전법, 열반에 이르는 동안 부처님과 함께한 식물 이야기!

경전에는 왜 그렇게 많은 식물들이 등장하는가? 경전에 등장하는 식물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꽃과 나무들을 통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눈을 즐겁게 해주는 108종 세밀화 수록

민태영 저/신국판/전면컬러/384쪽/18,000원